



2026. 9. 8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은행, ELS 소송 '연승'... 과징금 더 낮아지나

머니투데이

<https://zrr.kr/bfpjSE>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NH농협은행이 투자자를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은행에 유리한 법원 판단이 이어지면서 약 6000억원으로 낮아진 은행권 과징금이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감경될지 주목

'미래 소득' 반영해 무주택자 대출 한도 '숨통'...은행이 직접 안내

뉴스1

<https://zrr.kr/hFsdS>

청년층 등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해 꼭 막힌 대출 한도에 숨통이 트일 전망 그동안에는 차주가 직접 대출 한도에 장래 소득 반영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차주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

'하루 5000원, 연 10% 준다'...30만명 '우르르' 몰린 적금

한국경제

<https://zrr.kr/w7Gqby>

토스뱅크가 시중은행에 비해 고객 기반이 넓지 않은 인터넷은행 특성에도 불구하고 초단기 소액적금을 한 달 만에 30만 계좌를 팔아치워 주목 적은 금액과 짧은 적립기간이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다량취 캐리커를 키우는 게임 기능이 재미를 더해 흥행을 이끌었다는 평가

정부가 대주주던 우리금융 ... 외국인 지분 50% 넘어섰다

매일경제

<https://zrr.kr/07mSj5>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 지위를 잃어 사실상 민영화가 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우리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 최근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가 매각한 지분을 해외 투자자가 인수했기 때문이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적극적으로 해외 IR를 이어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전액 손실' 벨기에펀드...한투증권, 최대 80% 배상 진행 중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IF7AFa>

900억원대 규모로 조성된 후 전액 손실을 낸 해외 부동산 펀드 '벨기에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피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80% 수준의 손실 배상 절차를 진행 중 전체 900억원대 판매 잔액 중 한국투자증권이 589억원가량을 팔았으며, KB국민은행(200억원)과 우리은행(120억원) 등이 뒤이어 판매

투자자예탁금, 93조원대까지 떨어져...8개월 만에 최소

SBS Biz

<https://zrr.kr/Ac2WUy>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93조원대 수준으로 약 8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감소 코스피가 7000선 아래 박스권에서 두달 이상 지지부진하면서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예탁금 감소와 달리 개인들의 '빚투'는 증가

제급 키운 펫보험 시장... 청구 시스템은 '제자리걸음'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szjMpl>

펫보험 시장이 빠르게 커지며 보유계약 규모가 30만건을 돌파 하지만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진료정보를 둘러싼 불편이 여전, 보험업계에서는 표준화된 질병명·진료행위명 사용 의무화 및 표준 영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보험사 GA채널 매출 2개월 연속 '주춤'

보험매일

<https://zrr.kr/Y6snAL>

보험사 GA채널 매출이 하반기 들어 2개월 연속 부진을 지속, 여름 휴가철의 영향으로 영업일수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 한화생명도 GA채널 매출 80억원대 복귀 1개월 만에 다시 70억원대로 내려앉은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메리츠화재는 7월 GA채널 매출이 2개월 연속 70억원을 하회

높이 높아진 기업들...커스터디업체 '기관급 서비스' 경쟁

이데일리

<https://zrr.kr/s2B4xp>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시장도 변하고 있는 모습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한 자산 보관을 넘어 회계·외부감사와 내부통제, 보험 등 법인 고객이 요구하는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

주식 연계 밍코인 '후끈'...로빈후드 체인, 수수료도 '쏟'

MTN뉴스

<https://zrr.kr/pxxZOg>

주식과 밍코인을 결합한 이색 투자상품이 등장하면서 로빈후드 체인에서는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며 밍코인 거래가 급증하고, 수수료 수익도 크게 증가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에 따라 인기 지속성은 미지수로, 현재 로빈후드가 제공하는 일부 주식 토큰은 미국 증권법에 등록되지 않아 미국에서의 직·간접 판매가 제한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